

시론

광주시가 만든 미래산업 청신호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회장

그러나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전략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고,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광주시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정치권 공공기관 기업 대학 언론 노조 시민사회의 할 일은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것이 절실히 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는 광주 미래먹거리 산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신호를 만들어 냈다.

첫째, 인공지능 2단계 예산확보 청신호다. 강기정 시장은 대통령과 민생토론회를 통해 약속을 받아냈고, 현재 1단계 4천여 억원보다 2배수 범위의 예산이 에타면제 사업으로 정부와 논의중에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HPC(고성능 컴퓨터) 용량 인프라 확장으로 향후 광주AI의 국가데이터센터로의 확실한 차별적 경쟁력과 AI대기업 유치와 연구 혁신 가속화, 산업전반의 디지털혁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제 광주AI의 국내외 산업연관 확산전략이 면밀히 준비되어야 할 때다.

둘째, 작년 광주미래차 100만평 산단 지정, 자율자동차 소부장특화단지 선정에 이어 올해 자율차 소부장 추진 예산확보와 광주영암 자동차실증도로 추진, GGM이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했다. 광주시는 빛그린 평동산단의

자율차단지와 첨단AI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해 빠르면 10월 기회발전특구신청이 이뤄지면 투자유치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광주 산업의 44%가 자동차다. 자동차가 전기차 자율차등 미래차로 육해공 모빌리티 산업으로 광주에서 더욱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광주시장은 광주시 미래차 추진체계도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 청신호다.

셋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과 기존의 에너지융복합지구 활성화, RE100산단 조성 과 호남 에너지 경제동맹 체계화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키우는 일이다. 지금은 국가정책 상 적신호 요인들이 많지만 광주와 호남은 이를 극복시켜 내야 한다. AI나 미래차와 연관된 에너지특화지역 선정은 청신호가 될 수 있다. 호남은 자체적 RE100 달성은 물론 ESS 배터리 산업, 분산형 발전소 설립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로 먹고 사는 미래를 열 수 있는 국내 최우량 지역이다.

이런 청신호는 광주시가 갖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다. 광주는 그간 광주와 연관이 없었던 광산업 AI산업도 만들었다. 이제 첨단 AI 광기술은 광주의 자동차 에너지와 산업으로 연관하고 더 나아가 양자정보통신과 우주항공까지 새로운 산업을 만들 기반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광주의 미래가 달려있을 뿐이다. 광주의 미래산업을 만드는 체계적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정권에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월세살이'를 통해 영광은 물론 역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곡성에 상주하며 표심을 뒤흔들고 있다. 혁신당은 추석 연휴 직후 첫 최고위도 장현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여는 등 올인 전략으로 나섰다. 제1야당, 2야당 대표 모두 전면도 등판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다.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믿음이 굳건하며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 패배한다면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 2기 체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텃밭의 균열도 현실화 될 수 있다. 혁신당은 호남 패권을 놓고 민주당과 양대 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승리한다면 2년 후 지방선

社說
전국적 이목 영광군수 재선거 유권자 냉정한 판단을

거를 앞두고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어 당세를 확장할 발판이 되는 셈으로, 일찌감치 화력을 집중해왔다.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영광에서는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연합에 40.14%의 지지를 보낸 반면, 조국혁신당에도 30.41%로 대등하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 8차례 지방선거는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될 정도로 민주당에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이지만 이번 재선거도 예측불허로 요동치고 있다.

군수 선거를 당 대표들이 진두지휘하는 이래적 상황이다. 야권 세력별로 지지층이 결집하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혼전으로 전망한다. 최근 여론조사도 오차 범위 내 초점전으로 나타나 혁신당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이 한창인데 유권자들은 냉담하다. 주민 화합, 지역 미래를 위해 일할 책임자에게 투표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호남 정치 발전을 위해 인물 중심의 선거를 해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도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길 바란다.

광주교육청 '열린 학교'는 지역사회 상생 모범사례

광주시 북구 운암동 경양초등학교 유희부지에 들어선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는 기존의 문화·체육·돌봄 기능에 교육 기능이 추가된 주민 생활형 사회기반시설(SOC)이다. 이 곳은 스포츠클라이밍, 가상현실 체험장, 영유아 놀이방, 문화예술 및 돌봄, 교원 연구활동 공간 등으로 구성된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다. 촘촘한 돌봄 서비스와 광주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광주시는 시교육청, 자치구, 중앙정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합센터는 도심 속 학교공간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시교육청이 부지 확보에 애를 먹어왔던 부지와 공사비 25%를 지원한 것으로 학교 자원을 공유한 지역 상생이다. 이른바 '열린 학교' 정책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자치구 등과 협의를 거쳐 북구 3곳, 서구 8곳, 광산구 2곳 등 모두 13개교의 주차장 311면을 공유해 약 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매년 명절이면 교육청 본청, 지원청,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주요 기관 등의 주차장까지 문을 활짝 열었다. 시교육청은 개방이 가능한 학교의 강당(97.5%)과 운동장(98.3%)도 오픈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만의 공간을 넘어 주민들을 위한 영역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문화예술, 체육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지역 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공동체 시대다. 학생도 주민과 가까이 호흡하며 지역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강한 연대 의식을 갖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학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열린 학교를 더 주목하게 된다.

기고

노인일자리, '내 일'이며 '내일(來日)의 희망'



서미애
전남도 노인일자리팀장

하는 중요 정책 수단 중 하나는 '일자리를 통한 건강·소득 보장,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정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1천만 노인 시대를 앞두고 2023년 88만여명의 노인일자리를 2027년 노령인구의 10% 수준인 120만개로 늘리고, 신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61만개에서 70만개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28만개에서 50만개로 규모 뿐 아니라 비중 또한 크게 늘린다.

오는 11월엔 그동안 노인복지법에 담겨 있던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별 법령으로 정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류와 노인 채용 기업, 노인친화기업으로 이뤄진 취업 지원, 노인 생산품 판매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 등이다.

민선 8기 전남도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사책을 추진 중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 26.1%(전국 평균 19%)로 전국 최고인 전남도가 일약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인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

다.

올해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7천911개 늘어난 6만4천889개에 2천502억원을 투자,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사업은 총 5만4천964건으로 1천834억원이 투입된다. 하루 3시간씩 매일 30시간 일하고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주로 공공시설 봉사,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에 참여한다.

또한 아동·장애인·노인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60시간 근무 시 78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사업과 소규모 매장 운영, 식품 제조(김치, 장류, 빵 등), 택배 등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공동 판매를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도 확대했다.

일자리 수행기관 업무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458명(도 1명, 시·군 457명) 운영,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5개소 지원,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를 돕는 '은빛장터'와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비를 1개 소당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선정·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확충·지원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지역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 세대 간 연대감 강화를 위한 마중물로 만들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에는 이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며, 우리 후손과 어르신들의 '내일(來日)의 희망'임을 깊이 새기며 모든 세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앞으로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 순위가 30계단 추락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국제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서 노인 비율은 3위를 기록하고 출산율은 현재의 꼴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6천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72년에는 102억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는 5천200만명에서 3천600만명으로 1천600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인구가 2.2% 증가할 때 30.8%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남북한을 모두 합쳐도 50년 뒤 '6천만' 안팎일 것으로 예측됐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올해 7천800만명에서 2072년 5천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북한 인구 순위는 올해 20위에서 2072년 40위로 20계단 떨어진다. 한국과 북한 인구는 각각 2020년과 2032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스미싱 사기, 우리 사회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해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금품을 탈취하는 것을 뜻한다.

피싱 사기 범죄가 처음 발생한 이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류, 수법 등이 다양해지고 진화해오고 있다. 특히 스미싱 사기 범죄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스미싱 범죄 예방은 개인의 안전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스미싱 범죄의 몇가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법원 출석 통지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건강 검진' 등

공공기관 사칭형, 두 번째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으로 위장하여 특히 명절 전·후 안부·선물 문자 등으로 위장하는 지인 사칭형, 세 번째로 '택배 반송, 주소 수정' 등의 내용으로 발송하는 택배 사칭형 등의 유형을 들 수 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스미싱 범죄는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방법으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의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로 클릭·터치하지 말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게 보안 설정을 강화해 놓는 것(시티즌 코난 등 설치), 휴대폰 내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보수책 등이 있다.

위 사례와 피해 예방법을 숙지했다면 다음은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또한 스미싱 범죄 등 다른 피싱 범죄의 사례를 발견하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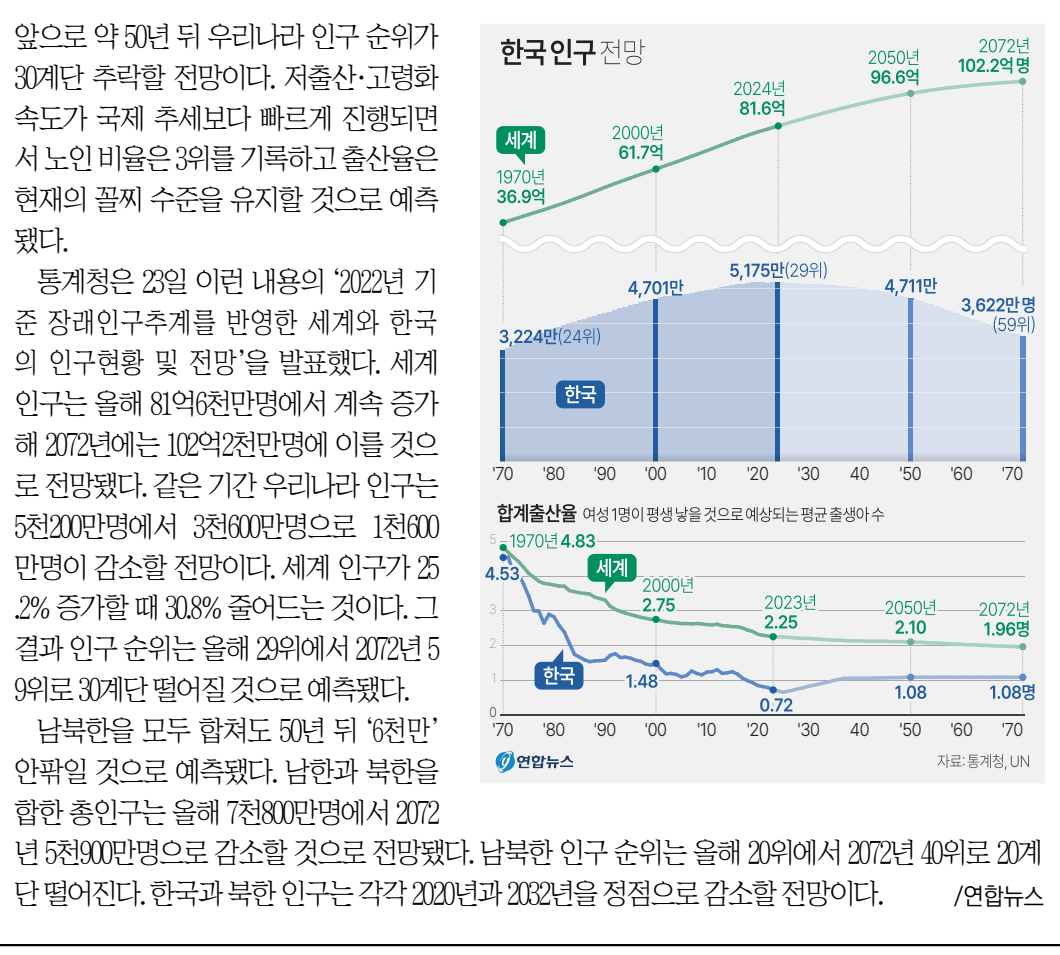
스미싱 범죄예방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스미싱 범죄, 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허이록·고흥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50년 뒤 韓 인구순위 30계단 추락...노인 비율 3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